

너희의 시선과 태도를 바꾸는 방법.

오늘 밥다다는 노력가들 모두의 집회를 보고 있다. "노력가" (푸르샤라티)라는 말 속에 지식 전체가 합쳐져 있다. "푸르샤라티"라는 말은 "푸루시" (존재, 주인)와 라티(수레꾼)라는 뜻이다. 무엇을 모는 수레꾼이냐? 무엇의 주인이냐?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것, 즉 수레를 모는 수레꾼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단지 이 한 마디 말의 뜻에 안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는 일체의 모든 나약함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은 물질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그것에 종속되지는 않는다. 수레꾼은 수레를 모는데, 수레에게 예속된 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이는 전능한 권위자 아버지의 모든 힘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진다, 즉, 그는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것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모든 힘은 아버지의 소유물이고 각 자녀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밥다다는 모든 힘으로 이루어진 왕국에 대한 행운을 너희들의 타고난 권리로 너희 모두에게 주었다. 너희들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힘에 대한 자아주권, 모든 권리를 다 지닌 이라는 의식의 틔락과,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잠겨 있는 모습에 대해 마음의 옥좌를 받았다. 태어나자마자 너희들은 각자 세계의 유익을 위한 봉사의 왕관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 모두 옥좌, 틔락, 왕관과 왕국이라는 권리를 타고나지 않았느냐? 이 네 가지 성취의 화신인 영혼들이 약할 수 있느냐? 너희는 이 네 가지 성취를 돌볼 수 없느냐? 때로는 틔락이 지워지고 더러는 너희가 옥좌에서 내려오고, 어떤 때는 왕관을 쓰지 않고 짐을 져 나른다. 너희는 쓸모 없고 낭비적인 것들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다닌다. 너희는 자아의 군주라고 불리면서도 제 스스로에 대한 왕이 되지 못하고 예속된 백성이 된다. 어째서 그런 놀이를 하느냐? 만일 그런 놀이를 계속한다면 왕국의 행운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는 본래의 산스카르들이 언제 불멸해지겠느냐? 만일 그런 놀이를 지속한다면, 너희가 뭘 성취하겠느냐? 제 본래의 산스카르들을 불멸하게 영속되도록 만들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는 왕국에 대한 권리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 만일 너희가 전사의 산스카르를 오랫동안 가진다면, 즉 싸우느라 너희의 시간을 보낸다면, 만일 너희가 오늘은 승리하지만 내일 패배당한다면, 만일 너희가 한순간 승리하고 그 다음 순간 패배당한다면, 영원히 승리하는 산스카르를 갖지 못한다면, 너희가 그 경우 전사라고 불리겠느냐, 브라민이라고 불리겠느냐? 신인이 되는 것은 브라민들이다. 전사들은 그 다음에 가서 전사들이 된다. 신인들의 상징과 전사들의 상징은 다르다. 기념물의 그림에도, 한 사람은 활과 화살을 들고 다른 이는 피리를 들고 있다. 피리를 가진 이는 피리를 연주하는 주인 (물리다르)이 되어서, 5악이라는 독사에게 물려 독이 퍼지는 일 없이, 그는 모든 독을 제거하고서 뱀을 침상으로 만들었다. 독사와 침상이 된 뱀 사이에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 변모가 어떻게 이뤄졌느냐? 피리로 인해서다. 그런 변모를 가져오는 자들만이 승리하는 브라민이라고 불린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자문해봐라.

너희들 모두 제 약점을 정직하게 드러냈다. 너희는 그 정직함에 대한 점수를 받을 텐데, 밥다다는 너희들 각자가 제 산스카르를 변화시킬 힘을 아직까지도 기르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 세계 변화자가 되려느냐? 너희들의 시선과 태도가 언제 불멸하게 변하겠느냐? 너희는 눈길로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들이다. 그러니 왜 너희의 시선이 말썽을 부리게 허용하느냐? 너희는 모든 것을 신성한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비대하게 큰 눈으로 보느냐? 신성한 눈으로 볼 때는 너희가 끊임없이 신성한 형태만 볼 것이다. 비대하게 큰 눈은 오로지 피부만 볼 것이다. 피부를 보고 피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 그것이 천사들의 일이냐? 브라민들의 일이냐?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자아군주의 일이냐? 이렇게 너희는

브라민들이냐? 너희가 누구냐? 바바가 그 이름까지 말해야겠느냐?

몸을 가진 모든 영혼들. 모든 여자들을, 언제나 삭티의 형태, 세계의 어머니나 여신의 형태로 보라. 이것이 신성한 시선으로 본다는 뜻이다. 그녀가 쿠마리, 어머니, 자매, 너희의 선생, 또는 봉사자인 도구일지 몰라도 그녀는 누구냐? 그녀는 삭티의 한 형태다. 형제와 자매의 관계에서도 태도와 시선이 때때로 나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녀를 삭티, 쉬브 삭티의 형태로 보라. 사악한 의도를 갖고 삭티 앞에 오는 이의 상태는 어떻겠느냐? 너희는 그것을 알지 않느냐? 그녀는 단지 선생일 뿐 아니라 쉬브 삭티다. 그녀는 너희들의 영적인 자매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그녀를 쉬브 삭티로 보라. 어머니와 자매인 너희들은 또 변함없이 쉬브 삭티의 형태에 늘 안정해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사람은 나의 특별한 형제, 또는 나의 특별한 학생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자매들은 쉬브 삭티들이고 너희는 마하비르들이다. 너희는 랑카를 불태울 자들이지만 우선 먼저 너희들 내면에 들어있는 라반의 후손들을 불태워야 한다. 그들이 보여주는 마하비르 (하누만)의 특기는 뭐냐? 그가 끊임없이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라마 하나뿐, 다른 누구도 아니다. 너희들은 이것의 그림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모든 형제들은 마하비르이고 모든 자매들은 삭티다. 마하비르는 라마에게 속하고 삭티는 쉬바에게 속한다. 어떤 육신의 존재를 보는 동안에도 언제나 이마에서 영혼을 보라. 너희는 영혼에게 말하겠느냐, 몸에게 말하겠느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은 영혼이냐, 몸이냐? 매 1초1초마다 끊임없이 몸에 들어있는 영혼을 보라. 너희의 시선이 이마에 있는 보석에 쏠리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영혼이 영혼을 볼 때 그는 자동적으로 영혼의식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1과가 아니냐? 제1과인 알파의 형태를 확고히 하지 않고서야 너희가 어떻게 베타인 왕국을 받겠느냐? 그저 이것 하나를 늘 조심해라. 뭘 해야 하든 너희는 고귀한 행위를 행해서 고귀해져야 한다. 그러니 모든 것에 대해 결단을 지닌 자가 되어라. 무엇을 참아내야 하거나 직면해야 하든, 너희는 고결한 행위를 행해서 고귀한 변모를 가져와야 한다. “노력”이란 말을 부주의하게 사용하지 마라. “나는 노력가다. 나는 전진하고 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 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부주의한 언어다. 그 순간, “노력”이라는 말의 의미에 안정해라. 물질이 그 주인을 속일 수는 없다. 이 모든 유형의 나약함은 부주의를 나타내는 표시들이다. 마하비르는 손바닥에 산을 엮어 가지고 1초에 날아간다. 즉, 그는 산을 물처럼 가볍게 만든다. 이 사소한 물질들이 다 뭐냐? 그런 마하비르들은 개미들까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의 소망과는 반대로 이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마하비르의 말이냐? 지각 있는 사람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도둑들은 와” 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지각 있는 사람은 거듭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꾸자꾸 속는 이는 부주의한 사람이다. 만일 너희가 안전의 수단을 갖고서도 쓰지 않는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일은 그래도 일어난다.” 너희는 이것을 어떤 종류의 상식이라고 부르겠느냐?

결단력을 가진 자가 되어라. 나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도 내일이 아닌, 오늘, 아니, 오늘도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을 라마에게 순종하는 마하비르가 되는 것이라고 부른다. 오늘은 만남의 날이지만, 너희 자녀들이 노력해왔으니 바바는 너희들의 노력에 응답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약점들을 도로 갖고 돌아가겠느냐? 이미 준 것을 되가져 가지는 않을 테지? 심지어 그것이 전력을 다해 너희에게 돌아오려 해도 너희는 그것이 돌아오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 적이 오도록 너희가 허용하겠느냐? 주의와 점검은 2종의 자물쇠다. 기억과 봉사가 두 번째 2종의 자물쇠다. 너희들 모두 이것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한결같이 이 2종의 자물쇠를 채워 뒀라. 양쪽 모두에 자물쇠를 채워라. 이해하느냐? 그저 한 쪽에만 채우지는 마라. 너희는 물리적으로도 미묘한 방식으로도 환대를 많이 받아 왔다. 너희는 2중으로 환대 받아 왔다. 디디, 다디, 도구 영혼들이 진심에서 우러나 이제껏 너희를 환대해왔으니 이제부터는 너희 모두 그

보답으로 디디, 다디에게 변함없이 승리하겠다고 보장해야 한다. 이 말을 그저 입으로만 하지말고 진심으로 이 말을 해라. 그러면 이 사진 속에 있는 모든 이가 한 달 후에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너희가 뭔가 숨길 수 있어도 아버지에게는 아무 것도 숨길 수 없다. 앗차.

결단력으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한결같이 같게 만드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신성한 눈으로 영혼의 형태를 봐서 누구를 보든 오직 영혼만 보는 자들에게, “노력”이라는 말의 의미에 안정하는 노력하는 영혼인 자에게, 밥다다로부터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아버지와 똑같이 무체이며 에고 없고 악덕 없게 되어라 .

아버지 브라마가 마지막에 한 이 세 마디의 말, 무체이며 에고 없고 악덕 없이 되라는 말을 기억해라. 생각에서는 항상 무체가 되어 모든 이에게 초연하고 아버지만 사랑해라. 말에서는 늘 에고 없게 되어라, 즉 언제나 말을 영적인 다정함과 겸손함으로 가득 채워라. 행위에서는 신체감각을 통해서 악덕 없게, 즉 순수성의 인격을 가진 자가 되어라. 무체의 영혼인 내가 육신의 지원을 받아서 말하고 있다, 라고 연습해라. 육신의 형태로도 너희의 의식 속에는 무체인 형태가 있게 해라. 이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동안 육신을 가졌으면서도 무체가 되는 것이라 한다. 너희들의 원래의 형태는 무체이고, 육신은 너희를 지원한다. “무체인데 육신을 가진”이라는 이 2중의 의식은 강력한 단계다. 너희들의 진정한 무체 형태를 의식 속에 늘 간직해라, 그러면 그 형태의 진정한 미덕들과 힘들이 자동적으로 나올 것이다. 합류시대에 아버지의 단계와 같은 카르마티트 단계와 무체인 단계를 경험해라, 그러면 너희가 미래 21생 동안 아버지 브라마와 같은, 모든 미덕으로 가득하고 완전히 악덕 없고 고결한 삶의 단계를 계속 경험할 것이다. 주인이며 아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너희는 변함없이 에고 없고 무체인 단계를 경험할 것이다. 아이가 된다는 것은 너희들의 제한된 삶이 변한다는 뜻이다. 브라민이 되면 그때 너희는 브라민 생의 모든 학과목 중 제1과이며 제일 쉬운 학과목을 배운다, 즉 자녀들은 “바바”라는 말을 한다. 그러면 아버지는 “야야”라 한다. 단 한 마디뿐인 이 학과목은 너희를 지식으로 충만하게 만든다.

봉사에서 성공의 기반은 봉사를 위한 도구라는 느낌이다. 도구가 되는 데서 무체이며 에고 없고 악덕 없는 세 가지 특질이 자동적으로 나온다. 도구라는 의식이 없을 때는 “나”와 “나의 것”이라는 여러 유형의 의식이 봉사가 느슨해지게 만든다. 그러한즉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게 해라. “나는 도구다”라는 표현을 기억해라. 오직 도구가 됨으로써만 너희는 무체이며 에고 없고 겸손하며 일체의 다른 생각이 없는 단계에 머물 수 있다. 단지 도구가 됨으로써 너희의 단계가 무체이며 에고 없고 다른 생각이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끊임없이 “나, 나”라고 말할 때는 교만, 시들음, 슬픔이 있다. 그 마지막 결과는 너희가 전진하는 와중에 비록 살아있으면서도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는 도구다”라는 이 주된 가르침을 늘 항상 간직해라. 도구가 됨으로써 너희의 마음속에는 어떤 유형의 교만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의견의 차이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히는 일조차 없을 것이다.

너희가 무체인 단계에 머무는 그 정도만큼 두려움 없이 머물 텐데, 왜냐하면 두려움은 몸에 대한 의식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모르는 미덕을 훈습하기 위해서는 무체가 되어라. 무체 단계에 더 많이 초연하게 머물수록 너희는 요가에서 점의 단계를 더 많이 경험할 것이고 움직여 돌아다니는 동안 천사의 단계를 경험할 것이다. 너희의 지시에 따라 손과 발이 계속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진 데서 1초에 무체가 되는 훈련을 쌓아라. 말하자면 너희들 본래의 무체 형태에 안정해 있는 연습을 해라, 그러면 교만이 없어질 것이다. 교만은 너희를 장식을 갖지 못한 자로 만든다. 에고 없고 무체인 단계에 안정해 머물다가 그 다음엔 모든 장식품을 다 들고 있는 단계가 되는 자들은 모든 영혼들을 위한 시혜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이에게 시혜자인

자들은 세계 왕국에 대한 권리를 다 차지한다.

육신의 형태이면서 무체 단계일 때 너희는 비전을 허락하는 화신이 될 것이다. 너희가 여러 생 동안 몸의 형태를 자연스레 의식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본래의 형태에 대한 의식을 오랫동안 경험할 필요도 있다. 이 제1과를 마치고 영혼의식 단계에 머물 때 너희는 모든 영혼들에게 비전을 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나는 무체가 되고 영혼을 의식하는 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악덕 없는 단계를 가진다는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 너희는 심지어 마음으로도 악덕 없는 단계를 만들어야 한다. 너희가 하루 내내 요기가 되고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덕 없고 무체가 되는 목표를 너희 앞에 끊임없이 간직해라. 그러면 너희는 카르마티트이며 천사의 단계가 될 것이고, 그 어떤 불순함이나 5원소도 너희를 끌어당기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무체이며 에고 없고 악덕 없는 단계에 즉시 안정하도록 너희 스스로에게 지시해라. “내 것”이니 “네 것”, 자부심, 명예 등의 흔적도 없게 해라. 그런 것들의 흔적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그 자손들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심지어 생각에도 악덕의 흔적이 없게 해라, 오직 그제야 이 세 단계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의 영향에 의해 상속자와 백성들이 금세 나타날 것이다. 신속한 봉사가 눈에 보일 것이다.

너희는 이제 너희들의 집인 비물질 세계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나라에 따라 너희의 의상도 걸맞아야 한다. 그러니 지금 너희도 집에 돌아가고 다른 이들도 모두 집에 데리고 가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라. 이 의식을 가지면 너희는 일체의 관계와 자연의 모든 원소의 유인을 쉽게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너희는 초연한 관찰자가 될 것이다. 초연한 관찰자가 됨으로써 너희는 쉽게 아버지의 동반자가 되고 또 아버지와 대등해질 것이다. 시시때때로 짬을 내서 몸에 대한 의식에서 분리되어서 무체인 영혼 단계에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연습을 해라.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든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나는 무체인 영혼이며 신체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행위를 행하고 있다”라고 연습해라. 무체인 단계는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자의 단계로 신체기관들을 행하는 자로 만드는 단계다. 영혼은 일이 행해지도록 고취하는 자다. 그러니 영혼의식의 무체 단계에서는 너희가 자동적으로 무체인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다. 하루 종일 너희가 “나”라는 말을 몇 번 하든, “무체인 영혼인 나는 육신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무체 단계를 기억할 때 너희는 자동적으로 에고가 없어질 테고 육체의식은 끝날 것이다. 영혼을 기억하면 무체인 단계가 확고해진다. 너희는 축복의 공여자에게서 무체이며 에고 없고 악덕 없어지라는 축복을 이미 받았다. 이제는 이 축복을 실행에 옮겨라. 즉 너희를 지식의 화신, 기억의 화신, 비전을 허락하는 형상으로 만들어라. 너희 앞에 누가 오든 이마에서는 보석을, 너희의 눈에서는 집중적인 힘을, 너희 입에서는 축복의 말들이 나오는 것을 듣게 해라. 오직 그제야 계시가 일어날 것이다.

Blessing: 말과 생각을 통해서 동시에 봉사함으로써 쉬운 성공의 화신이 되어라. 말을 통해서 봉사하는 동시에 생각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은 강력한 최종 봉사다. 너희가 생각을 통해서 봉사하고 또 말을 통해서도 봉사하는 결합된 형태를 가질 때는 2중의 결과를 가져올, 쉬운 성공이 있을 것이다. 말을 통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소수 있지만, 사물을 돌보거나 다른 일에 참여해 분주한 자들은 모두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분위기는 요그육트해질 것이다. 각자가 “나는 봉사해야 해”라고 느끼게 해라, 그러면 분위기가 강력해질 것이고 2중의 봉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Slogan: 안정된 단계의 자리에 변함없이 앉아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흔들림 없고 부동한 상태에 머물 것이다.